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개정고시

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 1월 6일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제2002-23)』을 개정고시 하였다.

개정고시의 주요골자

서면보고를 병행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9.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과 관련된 기관을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망을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밀봉방사성동위원소 관리현황 보고

3. 분기중 폐기현황(폐기구분 중 “이식” 신설)
“이식” : 치료목적으로 환자의 신체에서 이식되어 제거하지 않은것
(작성자 및 작성자 전화 번호 신설)

제17조(보고방법 등)

⑤ 제1항(관리현황보고), 제3항(월별판매현황보고) 및 제4항(월별생산현황보고) 보고는 통합정보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개봉방사성동위원소 관리현황 보고

1. 전분기 이월량 신설
5. 폐기현황(전분기 이월한 량)신설
(작성자 및 작성자 전화 번호 신설)

[부칙] 제2조(경과규정)

② 제17조제5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시행후 9월까지의 통합정보망을 이용한 보고와

[별지 제3호 서식] 방사선발생장치 관리현황 보고
(작성자 및 작성자 전화 번호 신설)

원전 불시정지 늘어

최근 들어 원전의 불시 정지가 부쩍 잦아지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4분기 동안의 원전 안전성능지표를 평가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과기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4분기 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원전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원자로가 6회나 정지돼 지난 3분기의 3회보다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전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동안 영광 4호기, 울진 3호기, 울진 4호기, 영광 5호기가 각각 1회

씩, 울진 1호기는 2회 정지됐다. 특히 원전 핵심계통인 원자로계통에서의 고장으로 인한 정지가 3회에 달했다.

과기부는 원전 정지가 늘어남에 따라 원자로계통은 물론 터빈·발전기계통을 포함하는 원전의 종합예방안전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부는 일반 국민들이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원전의 11개 안전지표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해 과기부 홈페이지(<http://www.most.go.kr>→정보자료실→원자력소식→원전안전성능지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폐기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재활용 된다

폐기될 예정이거나 폐기된 방사성동위원소(RI)를 체계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은영수)은 23일 의료계와 산업계 등에서 RI를 사용하는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RI의 활용도를 높여 수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기용 RI를 재활용하기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RI의 에너지가 당초 사용처의 용도에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면 한국수력원자력(주) 산하 원자력환경기술원(NETEC)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위탁을 받아 전량 폐기(영구보존)해왔다. 과기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중 RI 재활용에 관한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폐기될 예정이거나 폐기된 RI를 재활용하기 위한 첫 시도”라고 소개했다.

동 안전기술원 관계자는 “그동안 에너지가 떨어

어진 RI가 재활용된 경우는 극히 적었다”면서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거나 폐기된 RI 현황을 파악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병원과 산업체, 연구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필요한 RI를 양수·양도해 재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활용의 한 사례로 “현재 암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코발트 6000의 경우 10-15년 후면 병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다른 기관 등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재활용 대상은 산업용 계측기나 병원 암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밀봉 RI에 국한된다. RI는 암 치료는 물론, 용광로내 쇳물 높이 측정, 잔류농약 측정, 방사능계측기 교정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수입물량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수입된 밀봉 RI는 32억여 원어치였다.

의학 정보

의학 정보



강남서울외과
원장 정희원
www.analsurgery.co.kr

치질의 원인과 치료법

젊은 층 치질 증가, 생활습관이 원인

지금껏 20-30대는 치질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왔다. 퇴행성 질환인 치질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업, 취업 등의 스트레스와 패스트푸드 위주의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다.

필자의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보면 20대가

40%, 30대가 35% 가량으로 전체의 2/3에 해당한다. 보통 치질은 사춘기 즈음에 생겨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되는 질병이다. 그래서 보통 30대 후반이나 40대 정도에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식습관이 변하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시기도 빨라진 것.

좌식, 패스트푸드 즐기는 습관이 치질 불러

우선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